

공 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문화재명 : 윷놀이

○ 지정사유

- ‘윷놀이’는 우리 고유의 놀이로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엮어지고 젓혀진 상태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운(運) 놀이 형태임.
- 윷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졌으며, 산업화·도시화로 마을공동체가 급격히 와해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현재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전통 놀이문화임.
- (역사성) 역사문헌에서 ‘윷’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윷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윷을 ‘저포(檣蒲)’와 관련시켜 윷과 저포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혼용하여 지칭하기도 하였음. 조선시대 초기에 윷놀이에 해당하는 ‘사회(柶戲)’라는 용어가 나타나며, ‘척사(擲柶)’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나타나 일제시대와 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됨. 기록을 통해 윷놀이는 주로 연말·연초에 아이부터 성인까지 여성·남성 모두가 즐기던 놀이임을 알 수 있으며, 윷가락을 던져 그 해 마을 농사의 풍흉(豐凶)을 점치기도 하였음.

- **(학술성)** 윷놀이는 조선시대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김문표(金文豹, 1568~1608) 『중경지(中京誌)』에 ‘사도설(柶圖說)’을 비롯하여 이규경(李圭景, 1788~1856)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사희변증설(柶戲辨證說)’, 심익운(沈翼雲, 1734~?)의 『강천각소하록(江天閣銷夏錄)』에 ‘사희경(柶戲經)’까지 윷놀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음.

윷놀이는 학술성과 연구가치가 큰 놀이로 특히 학술연구로서의 주제성이 분명하고, 그것이 지닌 가치는 무궁무진함. 첫째 윷놀이의 시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 둘째 조선조 유학자들의 일부 연구와 시문(詩文)에서 볼 수 있듯이 윷놀이를 ‘저포(樗蒲)’의 일종이라 하거나 저포에서 변화·발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 셋째 윷놀이의 핵심요소인 ‘윷판(柶圖, 馬田)’의 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넷째 윷가락의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에 관한 연구 등 학술 연구 주제로 활용하기에 가능성이 높음.

- **(대표성)** 윷놀이는 독창적인 놀이로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陰)과 양(陽),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도 지니고 있음. 또한 놀이의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윷놀이와 유사한 판놀이(board game)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윷놀이의 놀이도구, 놀이판, 놀이 진행방식이 다른 판놀이에 비해 매우 독특함.

- **(사회문화적 가치)** 윷놀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놀이로 특정 지역에서 편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 굳이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놀이판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음. 그 전승에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개방되어 있음.

윷가락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가락윷·종지윷 등), 윷판 없이 말을 노는 건궁윷놀이 등 윷판의 다양한 형태, 놀이방법의 변형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놀이로 파악됨. 또한 현재 윷놀이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게임화 등 달라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윷놀이의 전승도 확인되는 등 윷놀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속가능성) 윷놀이는 현재에도 연초부터 정월대보름 동안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전승활성화가 가능한 놀이임. 윷놀이 자체가 지닌 요인으로 운(運)에 기대는 운놀이라는 특성, 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끗수)를 운용하는 가변성의 특성, 직관적 놀이 구성이어서 배우기 쉬운 특성, 주변 상황에 맞게 열린 놀이의 특성 등이 미래에도 윷놀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로 그 전승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
- (검토결과) 위의 내용처럼 ‘윷놀이’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지정방식) ‘윷놀이’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94
- 전송번호 : 042-481-497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E-mail : jhlee8209@korea.kr